

2025. 11. 2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온수진

02-2133-2101

조경협력팀장

김승렬

02-2133-210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parks.seoul.go.kr/>

서울시·천일에너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 조성 업무협약

- 서울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위해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
- 25년 보라매공원에 이어 26년 서울숲에 폐자원을 활용한 정원 '지구하다' 조성
-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ESG 경영실천의 일환
- 서울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서울시는 2026년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에 기업 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ESG 경영에 힘쓰고 있는 천일에너지와 1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은 11월 26일 11시 서울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상원 천일에너지 대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대상지를 제공하고 천일에너지는 기업동 행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천일에너지는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지구하다'로 기업동행정원에 참여한 바 있다.

- ‘지구하다’는 천일에너지가 꾸준히 실천해 온 폐기물 자원화 활동의 가치를 시각화한 정원으로, 버려진 나무를 지구를 위한 상상력의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듯이, 그늘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라는 식물로 정원의 정서를 표현한 정원이다.

- 내년 서울숲에 조성될 기업동행정원도 천일에너지만의 스토리와 가치를 담아 매력 넘치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재활용 소재 기반의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스며드는 정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박람회 이후에도 존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5년 보라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26년 서울숲에도 기업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협약식 사진



'25. 11. 26.(수) 협약식

(왼쪽부터 천일에너지 박상원 대표,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천일에너지에서 조성한 정원 '지구하다' (25년 보라매공원)

|Q1|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 ◆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박람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정원조성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Q2|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방법은?

- ◆ 서울시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상호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합니다.
 - (서울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 지원, 장소제공, 인수 후 유지관리 등
 - (기업) 정원의 설계 및 시공, 홍보, 재정지원 등

|Q3| 향후 유지관리는?

- ◆ 서울시와 기업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며,
- ◆ 이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